

## 1. 우리구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울산광역시는 원래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현재의 다운동을 중심으로 굴아화촌이라는 촌락이 형성 되었다.
  - 신라 제5대 파사왕때 굴아화촌에 현을 두고, 남쪽에는 생서랑군, 동쪽에는 동진현, 언양에는 거지화현을 두었다.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는 지명을 하곡(일명:하서)으로 고쳐 지금의 경주시 모화지방에 있었던 임관군에 속하였다.
- 고려시대
  - 고려 태조때 하곡.동진.우풍현 3현을 합쳐 흥려부(일명:흥례부)로 승격되어 한 고을로서 오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성종 14년(서기995년) 흥려부를 공화현으로 낮추고, 현종 9년(서기 1018년) 언양, 기장, 동래현을 포함시켜 방어사를 두고 별호를 학성이라 하였다.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서기 1413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비로소 “울산”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 선조 31년(서기 1598년)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들이 왜적을 무찌른 공이 컸던 점이 인정되어 울산도호부로 승격되었다.
- 근 대
  - 고종 32년(서기 1895년) 도호부를 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두었다가, 1914년 부.군을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과 병합하였고 이때 태화강 이남의 남산.달동.신정.옥동지역을 합하여 울산면, 하부면과 내상면을 하상면으로 하고, 현남면과 현북면을 합하여 대현면이라 개칭하였으며, 우리 북구는 농소면,강동면,하상면, 동면으로 개편되었다.
  - 1931년에는 종래의 편제를 개편하여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1934년에는 동면을 방어진 읍으로 승격하였다.

○ 현 대

- 제3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개발의 중심지대로 선정된 울산은 1962년 2월 1일 각령 제403호로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다운리, 농소면 송정·화봉리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하고,
- 같은해 6월 1일 법령 제1068호로 위 지역을 울산시로 나머지 지역은 울산군에서 울주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당시 농소면(지금의 농소1.2.3동)과 강동면(지금의 강동동)은 울주군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 1985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가 중·남구의 구청이 개청되면서 지금의 진장·효문·송정·양정·염포동은 중구 관할구역에 편입되었고,
- 1991년 1월 1일 법률 제4274호로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구로 명칭이 바뀌었고, 같은해 3월 2일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승격되었다.

○ 울산광역시 복구

-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3호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중구의 진장·효문·송정·양정동과 울주구의 농소읍·강동면을 합쳐 151.46km<sup>2</sup>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복구가 탄생하면서 농소읍이 농소1.2.3동으로 분동되고 강동면이 강동동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52호로 동구 염포동이 동년 3월 1일자로 편입되어 9개 동으로 형성되었으며,
- 1998년 8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한 동간경계변경 승인으로 1998년 10월 1일자로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통·폐합되면서 지금의 8개동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 신청사 건립에 따라 2001년 6월 1일 조례 제244호로 구청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5-9번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로 변경하였다.